俛仰亭歌의 理解

金 基 卓

<目 次>

1. 序 論
2. 俛仰亭의 時代
2.1 生涯와 背景
2.2 士大夫意識과 俛仰亭
3. 俛仰亭歌의 理解
3.1 俛仰亭歌의 境界性
1) 境 界
2) 自然과 寫實
3) 神仙과 理想
3.2 俛仰亭歌의 繪畵性
4. 結 論

1. 序 論

朝鮮朝의 詩歌文學은 그 어느 時代의 文學보다도 自然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歌辭文學과는 가장 밀접한 位置에 놓여 있다. 그것은 發生 初期부터 歸自然의 心境에서 나온 것이기에 悠長한 時代精神과 自然이 交觀함으로서 江湖自然의 美는 歌辭作品에서 더욱 깊이 있게 이해되어 왔다.

歌辭文學 作家中 俛仰亭 宋純은 國文學史上 聾岩 李賢輔와 더불어 江湖歌道의 先唱者이며 수립자라 할 만하다. 江湖歌道의 초기단계는 일반적으로 15C 初에 시작하여 孟思誠, 李賢輔, 宋純, 李滉, 權好文 등을 거쳐 17C 中葉에 尹善道, 그 以後 樂隱別曲까지 이어진다고 볼 때, 적어도 두 세기 이상 흐름을 통하여 가사의 여러 가지 양상을 짚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시에 종합해서 말할 수 없고, 다만 본고에서는 歌辭의 초기작품《俛仰亭歌》를 통하여 朝鮮朝 前期의 江湖 歌道가 지닌 그 初期的 전개의 局面에서 어떤 意味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이미 江湖歌道에 대한 관심과 연구성과는 陶南의 「朝鮮詩歌史綱」을 비롯해서 先學들의 연구를 볼 때, 江湖歌道의 世界觀, 美意識 등을 논하여 短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으나,[1] 특히《俛仰亭歌》를 비롯한 歌辭 전반에 대한 분석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채 아직

1)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서울, 을유문화사, 1954.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刊, 1977.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도 作品의 生成背景 설명에 불과한 듯하다.[2] 특히 《俛仰亭歌》를 비롯한 이름 있는 作家의 作品일수록 더욱 그런 느낌을 가진다.

본고는 지금까지 발표된 先學들의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歷史的 배경 속에서 재검토하고 作品內容을 理解하고자 한다. 筆者가 검증해 보고자 하는 가설은 단적으로 말해서 宋純은 朝鮮初期의 독서계층인 士大夫로서 江湖自然을 體驗하는 모습에서 그의 儒學者的 世界觀과 自然의 繪畵性을 그리는 심미성의 二元的 의식구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天人合一과 君臣一致를 主로 하는 王道意識을 바탕으로 한 神仙의 理想鄕을 그리는 江湖自然의 物我一致의식이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 16C 以後의 전개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살필만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俛仰亭의 時代

2.1 生涯와 背景

俛仰亭은 宋純의 號이며, 또한 亭子의 이름으로 삼았다. 字는 守初 또는 誠立으로서 그는 成宗 24年(1493) 全羅南道 담양군 기곡면 上德里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숙부 宋欽에게, 20代에는 訥齋 朴祥(1474~1530)과 六峯 朴祐(1476~?) 형제에게 道義之交를 맺으고, 宋世琳(1479~?)에게도 가르침을 받았다.

그 後 宋純은 中宗 14年(1519) 己卯士禍가 일어난 27歲때 別試文科에 급제하고, 28歲에 藝文館檢閱兼 春秋館記事官으로 官界에 들어 온 이후, 77歲 때 資憲大夫, 漢城府判尹, 議政府右參贊兼 知春秋館事에서 〈引疾乞歸 自此退老鄕園〉으로 致仕歸鄕하기까지 약 50年間이란 긴 세월을 무난하게 政界生活을 보냈다.

宋純의 生涯는 어린시절을 제외한 15C 末부터 16C 末까지 燕山君, 中宗,

文永午, 「孤山尹善道研究」, 太學社, 1983.

2) 丁益燮, 「湖南歌壇研究」, 進明文化社, 1975.
金東旭, 「壬亂前後歌詞研究」, 진단학보 25~27호, 1975.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형설출판사, 1974.
李鍾建, 「俛仰亭宋純研究」, 開文社, 1982.
신동엽, 「詩歌上으로 본 宋俛仰과 鄭松江과의 관계」, 한글 106호(13권 4호).
李在秀, 「俛仰亭宋純」, 사상계, 1959年 8月號.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明宗, 宣祖의 在位年間으로 社會의 變動이 극심한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戊午士禍(1498), 甲子士禍(1504), 己卯士禍(1527), 乙巳士禍(1545) 등 四大士禍와 한 번의 강권적인 王權교체(中宗반정) 및 金安老의 발호(1530)에 이어 大小尹의 政爭(1541) 등으로 政治的인 숙청이 빈번하였다. 이는 곧 當代가 치열한 政治的 갈등과 쟁투의 시대이자, 個人의 道德的인 完成을 기초로 한 王道政治의 具顯이라는 신진 士大夫層의 政治理想이 가혹한 장애에 부딪치면서 現實의 合理性에 처해 심각한 회의를 맛보지 않을 수 없었던 時期임을 말해 준다.

宋純은 1519年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직전 考試官 趙靜菴, 金湜, 南袞, 金緣 등에 의해 登科되면서, 당시의 政治理想인 道德的 倫理意識을 따르고, 理想主義的인 王道政治의 동참자로서 士林政治에 기대되는 人物이었다.[3] 그러나 中宗 14年(1519)에 中宗反正功臣의 僞勳削除事件으로 南袞, 沈貞 一派의 誣告로 政治的인 獄事가 일어나매 애통함을 禁치 못하였다.[4] 이때 젊은 宋純은 趙靜菴을 비롯한 先輩 士林들의 곧은 뜻을 이어받고자 노력하고, 이에 對한 비분을 吐한 克己와 저항이 강한 詩作으로 문제가 되어 南袞派의 배척을 받은 바도 있다.[5] 그뒤 31歲(1523)때 外艱을 당하고 世子侍講院說書, 弘文館修撰知製敎兼兩銓郎을 歷職하면서, 1530年 蔡無擇의 進言으로 金安老가 석방되자 宋純은 臺諫으로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도리어 金安老의 미움을 샀다. 드디어 1533年 金安老가 권세를 장악하게 되자 宋純은 과감히 그 그릇됨을 통박하면서 벼슬을 버리고 歸鄕하여 이때 俛仰亭을 짓고, 장차 이곳에서 優遊自適하고자 생각하였다.

그 후 仁宗元年(1545) 을사사화가 일어나는 前後의 世派의 분란은 극에 달하였다. 즉 연산군 폭정 이후 기강이 문란, 지배층의 분열, 民生의 遊離分散으로 東西朋黨의 원인이 되고 政治體制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四大士禍가 일어날 때마다 士林의 희생이 너무 컸다. 그 결과 地方士林의 處

3) 『先生二十七歲十月 中別試金珌乙科一人 其覆試也, 考官以濂洛出處 發策居魁 及殿試 安貞愍塘 靜菴趙先生光祖, 自菴金公緣 金公湜 各南袞 得先生所對曰季雲(金馹孫)以後 無此文章 將置首選 以策末語病 居第三人 趙先生旣深愛先生文待 踰邁請而先生已 登第歸覲矣』(俛仰集 卷五 年譜條)

4) 俛仰集 卷一 口號錄 呈石軒先生條.

5) 俛仰集 卷一
「己卯秋 士類多斥 死而朔啓並錄 此詩承旨崔世節 仍欲中傷 同僚止之云」
"曰己西時月未東 群星爭耀點長空 山川氣色回沈沒 誰識孤懷病此中"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士的·隱遁的 生活의 士大夫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당시 政治的 사정과 관련된 현상이었다. 그러나 乙巳士禍를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通해 드디어 훈구파를 몰아내고, 士林政治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士林이 政權을 장악하였지만 現實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컸다고 생각한다. 우선 政治的인 것보다 經濟的인 面에서 科田法체제가 무너져 많은 農民들은 自營地를 잃게 되고 佃戶로 전락하면서 과중한 소작료, 각종의 租稅, 貢物, 力役의 힘겨운 부담을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農民들은 軍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장을 떠나고, 이에 따른 不法的인 수탈에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핍박하였다. 宋純은 이같은 당시 사회현실에 대한 밀착된 生活감각으로 下層民의 곤궁한 삶의 고뇌를 漢詩로서 表現하였다.

즉 《田家怨》《聞隣家哭》《聞丐歌》《啄木歎》 등의 사실적, 서사시적인 장편시로서 당시 아전들의 苛斂誅求, 포악하고 무능한 수령들의 횡포, 나아가 國政의 문란까지 現實社會의 구조적 모순을 詩로서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宋純의 批判意識은 바로 生民을 補益하고, 국가를 福되게 하려는 趙靜菴의 至治主義思想에 영향이 크게 作用되었을 것이다.[6] 위와 같은 現實의 고발詩는 곧 宋純으로서는 現實의 政治世界에서 士大夫로서의 사명감을 발휘하고, 士林官人의 盡忠滅身하려는 信念을 나타내는[7] 儒道治世의 心情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宋純은 現實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면서도 俗世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現實에 머물면서 江湖를 擇하여 자기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自然美를 발견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도 明宗五年(1550) 58歲때 陳復昌, 李芑 등으로부터 冤罪를 입고 귀양가게 되었다. 이때도 그는 항상 자신을 생각해 주는 君恩을 생각하면서 短歌 《夢見主上歌》를 지었다. 또 그는 枯槁憔悴한 귀양길에서도 나라를 근심하니 백발이 늘어난다고 屈原의 故事를 인용하여 읊기도 하였지만,[8] 이것은 宋純이 겪었던 단 한 번의 政治的 위기로서 이듬해 다시 석방되어 1569年까지 계속 관직에서 머물다가 致仕隱退하였다.

이처럼 宋純은 新進士林 중에서도 그는 聾岩과 비슷한 官路를 밟아 오다가 만년에는 棄官歸鄕하여 俛仰亭에서 自然과 親愛하며 詩歌生活로 일생을 마

6) 「所謂交結往來者 皆所以淸論修己治人 事君事親之道則此乃國家之福也」(靜菴集 卷3 參贊官時啓二條)

7) 金血祚 : 俛仰亭宋純의 叙事的 漢詩의 世界, 민족문화논총 제2,3집(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刊, 1982), p.88.

8) 俛仰集 卷三.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친 사람이다.[9] 그의 平生은 어느 한 가지만을 위해서 동분서주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時間的 순서에 依해서 現實의 政治生活과 미래의 江湖自然의 삶을 영위하면서 항상 그는 江湖에 심취하여 一生을 누린 致仕江湖人이다.

2.2 士大夫意識과 俛仰亭

朝鮮朝 性理學者들의 文學은 現實觀과 처세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10] 첫째가 治世救民에 뜻을 두고 現實에 적극 참여한 예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은 朝鮮前期「道統」의 人脈을 이루는 至治主義者들[11]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문과 수양의 궁극적 目的을 政治現實에 나아가 道를 펴는 것에 두지만 治世에 나아가고 亂世에 물러가 學門과 수양을 쌓아 분수를 지키려는 例를 볼 수 있다. 이들은「見機出世主義者」가 아니다「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의 입장에 서서 自己의 進退를 時宜에 따라 신축성 있게 行動하는 사람들로서 政治的인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을 망정 오히려 학문이나 文筆로서는 大成한 사람들이 많다.[12] 이들의 대부분은 朝鮮朝 性理學者들이다.

마지막으로 現實 참여를 철저히 부정하고 林山에 隱居하여 오직 학문과 수양에 몰두하는 은둔적인 입장을 취한 士林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四大士禍라는 政治現實에 고초를 겪은 士類로서 적극적인 現實의 참여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한 平生 江湖生活을 즐기며 山林處士로서 현실을 떠난 觀照的 태도를 보였다. 金時習, 徐敬德, 曺植, 權好文 등이 그 대표적인 人物들이라 하겠다. 이들 외에도 대부분의 士類들은 自然에 對한 山林處士的 경향을 어느 정도씩 모두 갖고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볼 때 宋純은 첫 번째에 속하는 士大夫로서 至治主義의 성향을 띤다고 하겠다. 俛仰亭 宋純은 古佛 孟思誠(1359~1431), 聾岩 李賢輔(1467~1555)와 같은 순탄한 관료생활 못지않게, 약 50年間을 당시의 치열한 정치적 갈등과 쟁투 속에서, 個人의 道德的 完成을 다지면서, 王道政治의 具顯

9) 李在秀 : 俛仰亭宋純, 사상계, 1959年 8月號, p.272.
10) 韓頌洙 : 朝鮮前期 性理學者의 文學觀과 文學에 關한 硏究, 서울大 대학원논문, pp. 13~15.
11) 고려 末의 吉再를 비롯하여 金叔滋 및 金宗直, 金宏弼, 金馹孫, 金淨, 金絿, 趙光祖 등의 士林派의 선비들로서 형성되어 있다.
12) 이들은 대부분 性理學者들로서 李滉, 李珥, 金麟厚, 奇大升, 成渾, 柳希春, 盧守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退而自守"를 신조로 여기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에 적극 참여한 人物이다. 그러므로 그의 처세관도 당연히 趙靜菴의 처세관을[13] 따랐을 것이다.

趙光祖는 당시 中宗의 信望을 한 몸에 지니고 君과 民을 道學으로서 興起시키고자 一身을 돌보지 않았던 人物로서, 宋純에게는 自身을 첫 官界의 몸을 담게 하였던 考試官으로서 인연을 맺고 그의 理念에 따른 士類의 일원이 되었다. 당시 趙靜菴의 〈道學〉에 對한 政治理念은 政治的인 權力의 도모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人間의 의리를 강조하고, 人間의 倫理性과 道德性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內容이다.[14] 이같은 靜菴의 주장은 결국 선비의 학문하는 目的은 그 혜택이 百姓들에게 널리 미치게 하는 데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自身의 부귀영달, 生死를 초월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같은 趙靜菴의 영향에 宋純이 생각하는 士大夫意識도 버슬길 50年을 評할 때 간사한 계교를 부리거나, 세태에 영합하는 與世推移의 삶을 보전하지 않고, "强柔에 능하고 激과 隨에 적중하는 사람"[15]이라고 성품을 評하고 있다.

宋純의 時代는 士禍가 자주 일어나 世情을 가늠할 수 없는 不安한 시기이며, 음모적 政爭으로 誣獄이 끊이지 아니하였던 공포의 時代다. 그러나 宋純은 강직한 士林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때로는 群奸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不安定한 時期를 무난하게 보내는 宋純의 성격은 고매하고, 원만한 大人的인 風流를 지닌 人物로 상상된다. 그의 人格은 당시 交遊人物로서[16] 짐작할 수 있고, 특히 成聽松, 鄭松江에게 숭배되

13) 靜菴의 처세관을 보면
- 「士生斯世 業爲學門者 冀得展其懷抱 有補於生民耳…」(靜庵集 卷二, 因不從改正功臣事辭職啓三條)
- 「賢者惟知義理而已 窮達天壽 凡外物不能動其心 但力於學門 志於王道而已 豈有意於窮達矣」(靜庵集 卷四, 三拜副提學時啓三條)
- 「自古正直之流 盛行於世 則必有大禍隨其後 是故深於自謀 周於涉世者 不敢抗志直言以召怨 而低回俯仰 周旋彼此 保其身 全其妻子者 蓋亦多矣 此非委質憂國之人也, 夫不顧其身惟國是謀 當事敢爲, 不計禍患 正志之用心也」(靜庵集 卷三, 參贊官時啓二條)

14) 琴章泰 趙靜庵과 朝鮮朝의 선비정신, 한국학보 10. (서울, 一志社, 1978), pp. 180~183.

15) 俛仰集 卷五, 「古云能柔能强, 又云不激不隨」

16) 崔棄가 撰述한 行蹟에서 宋純의 交遊人物을 보면
「府君 與成聽松, 李退溪, 朴六峯, 爲道義之交而金河西, 申駱村, 李栗谷, 奇高峯, 一代名流, 二十餘人 並出入門下 聽松曰 此所謂天下桃李 盡在公門者也」라 하였고 黃胤錫의 〈頤齋遺稿〉의 家狀에도
「前後所交遊不替者 自申企齋光漢 以至退溪 聽松 松齋 龍門諸賢 旣皆道義相期 而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어 그를 위하여 지은 祭文에서도 宋純의 참다운 高德을 칭찬하였다.

宋純의 一生을 총론한 黃胤錫의 行狀에 보면

『公은 처음에는 崔世節에 위험하였고, 중간에는 金安老에게 困하였고, 끝으로 尹元衡과 李芑에게 禍를 입었다. 有事則 언제나 배척을 받았으나 굴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一生에는 귀양한 것은 한번 뿐이요, 끝내 身名을 俱存하였다. 己卯, 乙巳같은 참화가 연달아 일어났던 그 시절에 卓然히 大路를 밟으면서 完人한 者는 公 이외에 또 누가 있었던가.』[17]

라고 한 것은 그의 生涯와 함께 그의 政治生活의 評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宋純의 士大夫정신을 살펴 보았지만 한편으로 그의 風流的인 서정시인의 면모를 볼 수 있다. 宋純은 鄕里 霽月峰 아래에 石林精舍와 俛仰亭를 짓고 여기서 자신은 詩, 歌曲을 지으면서 江湖生活로 만년을 즐겼다고 본다.

公의 老後에 대한 遺閑記錄을 보면

『宋企林 年七十 以四宰 退老於潭陽, 其時 求得羅州牧使 棨眷下歸 數月後棄官 仍往潭陽 構石林精舍於霽月峰下, 又構俛仰亭, 爲暮年優遊之地 精舍架樑凡六間 左右各溫房二間, 中有扶樓四間矣, 藏書萬餘卷……無客時則, 俯讀仰思或怡養精神 逍遙徜徉 且以詩僧 爲方外友 過閱度日, 眞是太平風月一碩老也』[18]

와 같이 石林精舍와 俛仰亭을 만년의 優遊之地로 삼고, 俯讀仰思하면서 逍遙徜徉하고 方外人들과 벗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후 나이 80이 되어도 公은 讀書 作字로 自然과 더불어 一生을 보냈다.[19] 公의 이러한 風流的인 삶속에는 자신의 自號로 삼는 "俛仰之心"이 바탕을 이룬다고 본다.

公의 號 "俛仰亭"의 "俛仰"은 「俯仰宇宙」[20]로 통하는 天人合一의 "俛仰之心"을 表象하고 있다. 즉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땅을 굽어 보아도 한점 부끄럼 없는 일생을 마치겠다는 宋純의 意志가 그의 自號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後進名流 河西 錦湖 玉溪 思菴 高峯 霽峯 松江以下二十餘公 擧皆出入尊服 聽松嘗之歎曰…」

17) 俛仰集 卷五, 20~21.

18) 尹昕 〈葵陰漫筆〉

19) 「精力不衰 年過八十, 圍碁張弓, 看書作字, 無異壯時 日竹輿, 往來俛仰亭松下 山翁溪友, 雜坐談笑, 而其憂君憂國之誠未嘗少弛」(俛仰亭年譜 宣祖六年條)

20) 「就鄕在 創築俛仰亭 卽俛仰亭宇宙之義也 有三言詩 自足優遊 旋不復葺 而聽松爲書亭額」(年譜 中宗 28年條)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러한 그의 뜻이 自作한 《俛仰亭 三言詩》와 《三言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俛則地兮 仰則天兮
兩位之際兮 從而生我兮居焉
領溪山兮風月 將與偕兮老云」(俛仰集 卷四)

「俛有地 仰有天 亭其中 興浩然
招風月 挹山川 扶藜杖 送百年」(俛仰亭 三言詩)

이라 하였으니 自身의 號에서 江湖自然에 대한 아취와 그의 성격을 可히 짐작된다. 위의 《三言詩》에서는 天地間에 亭子를 세우고 風月山川을 벗삼아 자신의 삶을 누리겠다는 宋純의 意志가 담겨 있다. 宋純의 俛仰之心은 儒家에서 말하는 「道學의 理想」[21]을 담고 있다. 이 「道學의 理想」은 이미 趙靜菴이 주장한 것으로 天과 人이 理로서 一貫하고, 君과 民은 道로서 一貫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理를 살피고, 道를 따름으로서 天人과 君民이 조화하고 一致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治道의 근본을 天人合一에서 찾고, 나아가서 君臣一致까지 연결되고 있다.

宋純은 天人合一에서 나온 "俛仰之心"은 自然과의 會通하는 가운데서 생겨난 公의 意志로서 여기서 天地自然의 道를 깨닫고자 했다.

莊子에 依하면 人間은 自然과 德을 매개로 하여 會通한다 하여 天人合一·天人合德·天人不二라고 하였다. 이러한 天人合一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至人」[22]이라 하였듯이 宋純도 결국 俛仰亭을 自號로 삼았는 뜻은, 莊子가 理想으로 보는 至人의 경지, 즉 道를 體得한 同天의 경지에[23] 達하고자 염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莊子는 〈天의 所爲를 알고, 人의 所爲를 아는 사람은 至極하다〉[24]고 하였다. 淮南子도 人間訓篇[25]에서 天과 人을 合一시키

21) 「天與人本乎一 而天未嘗無其理於人 君與民本乎一, 而君未嘗無其道於民 故古之聖人 以天地之大·兆民之衆, 爲一己, 而觀其理, 而處其道」(靜庵集 卷二, 謁聖試策條)

22) 莊子는 人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 聖人, 至人, 眞人, 神人, 古之人, 賢人, 大人, 全人, 仁人, 天人, 善人, 道人 君子이며, 다른 하나는 衆人, 庶人, 今之人, 世俗之人, 細人, 小人, 散人, 常人, 惡人, 民人 등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것 중 至人, 天人, 神人, 眞人은 莊子가 理想視하는 人品이다.

23) 李康洙, 道家思想의 研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刊, 1984, pp. 12~13.

25) 莊子 大宗師篇

24) 「知天而不知人則無以與俗交, 知人而不知天則無以與道遊」(劉安撰 淮南鴻烈集解 대만商務印書館, 人間訓篇, p. 27).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고 있으므로 道의 근본은 天地萬物을 하나로 보고 있다. 天地間의 自然은 人間에게는 최고의 경지의 대상으로 볼 때, 宋純의 호 〈俛仰〉은 〈俛·地〉요 〈仰·天〉으로 결국 俛仰宇宙도 天人合一의 意味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俛仰亭 宋純은 天人合德의 至人으로서 自然과 간격이 없는 人間의 極至에 達한 사람이다.

즉 자기자신의 本生을 自然스런 흐름에 맡기고, 順物自然하는 虛心·無心의 경지에 도달한 天人合一의 世界를 면앙정자에서 理想을 실현시키고자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俛仰亭 주위의 自然은 결코 感官에 의한 경험 가능한 自然物이지만, 宋純에게는 至人의 心境에서 呈顧하는 俛仰之心의 天人合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天과 人은 至人之心·俛仰之心에서 齊一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自然을 通해서 仙道的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俛仰歌亭의 理解

《俛仰亭歌》는 湖南歌壇의 中樞的인 歌詞로서 俛仰亭 宋純이 59歲때 귀양생활에서 풀려난 후 정자를 개축하고 林悌, 奇大升, 金麟厚, 高敬命, 朴淳 등이 詩를 지어 祝賀하는[26] 자리에서 〈俛仰亭三十詠〉이 지어졌기에 歌辭도 이때 創作된 것으로 생각한다.

宋純은 平素 자신의 詩에 對해 별로 볼만한 것이 없는 범속한 사람의 것에 불과할 따름이라고[27] 스스로 겸허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後人들은 〈宋公은 섬세한 情感의 사람이고, 운치있는 詩人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일찌기 全羅監司를 지낸 李德潤(1566~1645)도 그의 《竹窓閑話》에서 〈宋公…風流豪邁 爲一代名卿〉이라고 하였고, 16C 末 沈宇慶은 〈遣閑雜錄〉에서

『近世作俚語長歌者多矣, 唯宋純俛仰亭歌 陳復昌萬古歌差强人意, 俛仰亭歌則鋪叙川田野 幽夐曠濶之狀 亭臺蹊徑高低回曲之形 四時朝暮之景 無不備錄 雜以文字

---

26) 「潭陽府使吳公謙偕登俛仰亭 勸以重葺且許助力是歲成之 奇高峰大升記之 林白湖又賦之」(俛仰集 卷五, 年譜 壬子條)

「河西及林石川億齡 朴思菴淳高霽峰敬命等有詩三十詠倡和焉」(俛仰集 行狀)

27) 「老天平生懶慢無比 學門之功闕如也 文墨小技亦無可觀, 若置聖門之下則不過徒飽食者 有時詩思發於感興詠物無非俚語俗句正類俳優如出戶庭 使有目者見之應未免折腰 故中年所作散逸者不復收拾 只錄見存若干 藏諸巾篋 以貽子孫云……」(俛仰集下二十六張)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極兵宛轉 眞可觀而可聽也 宋公平生善作歌 此乃其中之最也』

라고 하여 많은 가사作品 中에서 《俛仰亭歌》를 소개한 것은 그 당시 얼마나 人口에 膾炙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외에도 魚叔權의 《稗官雜記》와 尹昕(1564~1638)의 《溪陰漫筆》의 기록에서도 宋純은 남다른 風流의 멋을 지닌 사람으로 評하였다.

《俛仰亭歌》는 다음과 같이 「前段과 「後段」으로 二大別하여, 다시 十段落으로 구성된 長篇 敍景歌辭다.

	각 단락의 주제	繪畵性의 주제	境界의 구분	면앙정가 내용
前段	① 序詞	名山·名峯	寫景 : 無我之境 寫實主義 (神仙세계의 배경)	天人合一 物我一體 君臣一致
	② 七曲	無 涯		
	③ 水	茫 洋		
	④ 山	無 極		
	⑤ 안개	寂 寞		
	⑥ 四季	無 變		
後段	⑦ 物外	白 樂	造景 : 有我之境 理想主義 (神仙세계의 생활)	
	⑧ 燕飮	醉 興		
	⑨ 神仙	自 得		
	⑩ 結詞	君 恩		

宋純은 《俛仰亭歌》 외에도, 면앙정자에 對한 漢詩作品으로는 〈俛仰亭三言歌〉〈俛仰亭七言絕句〉 五首, 〈次俛仰亭韻七言律〉 八首, 〈索題韻〉 一首 등이 전하고 短歌로는 〈俛仰亭短歌〉 七首, 〈俛仰亭雜歌〉 二首 등 모두 25首가 傳하고 있다. 宋純은 이들의 詩를 通하여 俛仰亭의 自然을 理想世界로 변용시켜 관조의 경지를 다듬은 것으로[28] 그는 면앙정의 江湖自然에 對한 至人의 自樂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3.1 俛仰亭歌의 境界性

(1) 境 界

《俛仰亭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前段은 自然에 對한 일반적으로 면앙정자 주위의 眞景物을 핍진하게 그렸고, 後段은 宋純의 主觀的인 상상을 발휘하여 自己의 理想을 眞實하게 表現하였다. 다시 말해서 王國維(1877~

28) 李鍾建, 俛仰亭宋純研究(서울, 開文社, 1982), p. 90.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1927)의 『人間詞話』[29]의 이론을 빌린다면 俛仰亭歌는 境界[30]가 있는 作品으로 寫景(前段)과 造景(後段)으로 구분하여 內容을 분석할 수 있다.

「人間詞話」에서 말하는 〈境界〉는 作品에 있어서 참된 景物과 작가의 眞實된 감정을 묘사해 내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外在的인 景物과 內的인 情意까지 포괄할 수 있고, 분위기의 意味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境界〉란 中國특유의 名詞로서 예술비평, 그리고 文學批評을 함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

〈人間詞話〉에 첫 머리에 보면

『詞는 境界의 최상으로 삼는다. 境界가 表現되어 있으면 자연히 고상한 풍격(風格)을 이루게 되며 저절로 구를 갖추게 된다.』[31]

고 하여 中國의 詞에 있어서 批評의 척도로 삼고 있으며 詩와 詞論의 이론적 기초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을 바탕으로 하여 볼 때 境界란 作家의 內心이나 情意나 外部世界의 景物들이 作家에 의해 참된 感受의 과정을 거쳐서 作品中에 묘사되어 구축해 놓고 있는 고상한 형상의 世界를 말한다. 또 境界는 竟境인데 이는 詩·詞가 형성하는 意味의 世界로서 情과 景의 결합이며 情趣와 意想의 융합체를 이르는 말이다.

境界의 종류를 각기 그 관점에 따라 造景과 寫景, 有我之景과 無我之景, 大景과 小景으로 나누고 있는데 다음에 전개될 〈俛仰亭歌〉의 내용분석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 自然과 寫實(寫景)

① 序 詞

「无等山 ᄒᆞᆫ 활기 ᄃᆡ히　　동다히로 버더이셔
멀니 펴쳐와　　霽月峯이 되여거ᄂᆞᆯ
無邊大野의　　므솜짐작 ᄒᆞ노라.」

俛仰亭子가 위치한 霽月峰은 无等山[32]의 支峯이다. 无等山이 湖南의 名山

29) 王國維, 「人間詞話」, 中華書局.
李哲理, 「人間詞話」研究, 中國語文學 4,5집(영남대 중국어문학회 刊, 1982).
30) 「能寫眞景物 眞感情者 謂之有境界」(人間詞話 第六項)
31) 「詞以境界爲最上, 有境界則自成高格 自有名句…」(人間詞話 第1項)
32) 「无等山 在縣東十里 鎭山一云武珍岳一云瑞石山 穹窿高大雄盤五十餘里 濟州漢拏山 慶尙道南海巨濟等島皆在眼底…」(東國輿地勝覽 光山縣 山川條)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인 만큼 그 支峯인 霽月峰도 名峯으로서 인상이 그만큼 강렬하였던 것 같다. 無邊大野에 우뚝 솟은 霽月峯은 中國 蓬萊山에 비길만큼 俗世를 떠나 羽化登仙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는

「超然羽化孰云難　속세떠나 신선됨을 누가 어렵다 하드뇨
得臥蓬萊第一巒　봉래산 제일봉에 누워 있는 걸
脚下山川紛渺渺　발아래 山川은 가마득 멀고
眼前天地濶漫漫　눈앞의 天地는 넓어 끝없네
鵬搏九萬猶嫌窄　九萬里 날으는 붕새 오히려 좁다 여기고
水擊三千直待乾　三千尺의 물결도 하잘것 없다 하네
欲御冷風雲外去　시원한 바람타고 구름밖에 놀고자
腰間星斗帶欄干」　허리엔 북두차고 난간에 기댔네

라는 57歲에 지은 《俛仰亭題詠》의 七言律에서도 면앙정을 中心한 無限한 自然의 모습을 감지할 수 있으며, 앞서 41歲에 지은 《俛仰亭》이라는 詩에도 〈百里羣山擁野平, 臨溪茅屋幸初成〉[33]이라 하여 〈十年을 經營하여 草廬三間을 짝 어내니…〉라는 그의 短歌에서 면앙정 주위에 있는 自然의 敍景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序詞는 羽化登仙을 위한 전제로 名山 名峯을 찾아 道家的 仙景에 들고자 하는 隱逸處士의 꿈을 現實로 옮기고 있다.

② 七　曲

〈俛仰亭歌〉의 本詞는 〈七曲〉부터 8段落으로 細分할 수 있다.

「닐곱구비를 흔디움쳐　므득므득 버려ᄂᆞᆫ듯
가온대 구비ᄂᆞᆫ　굼긔든 늘근룡이
선줌을 ᄀᆞᆺ씨야　머리를 언쳐시니
너ᄅᆞᆯ바희 우희　松竹을 헤혀고
亭子를 언쳐시니　구름ᄐᆞᆫ 靑鶴이
千里를 가리라　두ᄂᆞ래 버렷ᄂᆞᆫ듯」

닐곱구비, 七曲을 품고 있는 无等山의 山勢는 능히 羽化登仙할 수 있는 神仙世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七曲中 의인화된 늙은 龍의 모습은 곧 人間으로서의 老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면앙정이 선 바탕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한 바탕 위에 宋純은 靑鶴이 되어 登仙할 준비를 하고 있다. 七曲에서는 분명 人間世上과는 떨어져 있어 靑鶴과 벗하여 소요할 수 있었다.

33) 俛仰集 卷一 32.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三十年前占此區　30年前 이곳에 점찍어 놓고
歸心幾逐暮雲浮　돌아갈 마음 몇번이나 저녁구름을 좇았던가
今來始起新亭臥　이제 와 정자 세우고 와서 누우니
白髮蕭蕭映碧流　백발만 쓸쓸히 푸른물결에 비치네

七巒橫斷得一區　일곱봉 가로질러 한 곳을 얻어
龍首臨溪擧欲浮　용머리는 시내에 닿아 승천하듯
濶野遙山供一望　넓은들 먼산이 한눈에 들어
岳陽何獨擅風流　악양루만 어찌 홀로 풍류로우리

破得天慳啓玉區　하늘도 아끼던 玉區를 열어
一登豪氣便高浮　한번 오르니 호기조차 문득 드높네
風回雨歇呈新霽　바람에 비그치니 안개가 자욱
撲面山光翠欲流　다가선 山빛 물빛으로 푸르다

一塵何自致淸區　티끌인들 어찌 이곳에 이르리
人擬蓬萊亦不浮　봉래라 일컫는 달 헛말 아니네
安得與仙同度世　어찌 신선과함께 함께살아
煙波長占泛花流」　아름다운 이곳에다 복숭아 꽃 띄우리

라 하여 60歲때 지은《次冲和弟俛仰亭》絕句四首는 면앙정자를 묘사한 詩中有畵의 寫景이다. 30年만에 스스로 세운 俛仰亭子에 지은 이 詩의 詩意는 사뭇 仙景에 對한 사실적 感興이 지극하다. 59歲때 겨울 귀양살이에서 풀려나면서 지은 것으로 첫 번째의 詩에서는 歸去來하는 심정이 완연하다. 그리고 儒學者가 생각하는 安居의 요체가 되는 仙景은 이 詩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제 2 首의 첫 두 句는 歌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靑鶴과 함께 武昌에 있는 黃鶴樓의 仙景을 상상하고 있다. 즉 神仙을 그리면서 마음 편안하게 끝간데 없이 소요할 수 있는 면앙정자의 위치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③ 水

「玉泉山 龍泉山　ᄂᆞ린 믈리
亭子앞 너븐들희　올올히 퍼진드시
넘쩌든 기디마나　프로거든 희디마나
双龍이 뒤트ᄂᆞᆫ듯　긴집을 처펏ᄂᆞᆫ듯
어드러로 가노라　므슴일 비얏바
돋ᄂᆞᆫ듯 ᄯᅳ르ᄂᆞᆫ듯　밤ᄂᆞᆺ즈로 흐르ᄂᆞᆫ듯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므조친 沙汀은	눈ᄀᆞ티 펴뎟거든
어즈러온 기럭기ᄂᆞᆫ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ᄂᆞ리락	모드락 흣트락
蘆花을 ᄉᆞ이두고	우러곰 좃니ᄂᆞᆫ뇨」

秋月山에서 뻗어 나온 玉泉山과 龍泉山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샘 물줄기는 가까운데서 먼곳으로 흘러감에 따라 銀, 玉, 白雲으로 비유하고 환기시키는 것은 Persona의 無垢性, 純粹性, 潔白性을 의미하고 있다. 물의 흐름을 보고 上德若水를 생각하게 하고 亭子 앞에 펼쳐진 茫洋한 勝景은 물과 하늘이 같이 하여 廣漠한 느낌을 준다. 亭子 앞 넓은 평야에 골골이 펴져나가는 힘찬 물줄기는 끝없는 線이다. 그 線은 廣에게 長으로, 지평선 아득히 뻗치면서 靑과 白의 빛을 발한다. 여기에 宋純은 亭子 앞의 긴 물줄기와 들판 위에 날으는 기러기떼로 그림의 공간여백을 처리하면서 地平線을 대신하고 있다.

「鉅野何年帶二川	너른 저 들판 언제 두 냇물 둘렀나
漾靑驟白一亭前	푸른물결 흰물결 정자앞 출렁이네
數行雁路雲邊濶	두어줄의 기러기떼 구름밖은 넓고
九郡山光天外連	아홉 구비 산빛은 하늘밖을 이어라
風檻坐傾無事酒	바람맞이 난간에서 일없이 마시는 술
江村看起太平煙	강마을에 이는 화평 내려 보노라
誰知凡界藏仙興	그 누가 속세에 숨은 신선 흥취 알려뇨
鶴背高情直欲傳」	고고한 선흥을 전하고 싶어라

宋純이 60歲때 지은 〈復次俛仰亭韻三首〉中에서 첫 번째 詩로서 歌辭의 表現 그대로 亭子 앞의 냇물을 묘사하고 있다. 큰 들판을 띠두른 냇물 가까이는 흰물결이 일고, 구름 밖으로 날으는 기러기의 자유분방한 모습은 神仙이 隱居할 장소의 한 경지를 그리고 있다. 마지막 두 句에서 鶴背에 앉은 仙人 自處한 모습은 곧 仙人然하는 俛仰亭 자신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듯 하다.

④ 山

「너븐길 밧기오	긴하늘 아릭
두르고 ᄆᆞᄌᆞᆫ거슨	모힌가 屛風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ᄃᆞᆺ ᄂᆞᄌᆞᆫᄃᆞᆺ
근ᄂᆞᆫᄃᆞᆺ 닛ᄂᆞᆫᄃᆞᆺ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온 가온ᄃᆡ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일홈난양ᄒᆞ야 하늘도 젓티아녀
웃독이 셧ᄂᆞᆫ거시 秋月山 머리짓고
龍龜山 夢仙山 佛臺山 魚登山
湧珍山이 錦城山 虛空의 버러거든
遠近蒼崖의 머믄것도 하도할샤」

亭子가 위치한 霽月峯에서 제일 가까운 秋月山은 담양의 鎭山이고, 昌平의 龍龜山, 夢仙山, 珍原의 鎭山인 佛臺山, 光山의 魚登山, 그리고 제일 멀리 있는 羅州의 湧珍山과 鎭山인 錦城山까지 넓은 平野를 둘러 싼 諸山[34]은 한 폭의 山水畵 그대로다. 앞에서 본 亭子 앞에 흘러가는 물줄기와 平野를 둘러싼 山勢와 다음에서 表現되는 山嵐까지 포함시키면 蘇東坡가 말한 〈詩中有畵·畵中有詩〉로서 俛仰亭의 作品은 山水畵를 보듯 神仙의 境界를 寫實的으로 충분히 表現되었다. 俛仰亭子 앞 넓은 大地에 펼쳐진 山川雲樹는 모두가 解脫의 淨境이요, 神仙의 機緣이 될 것이다. 또한 樂山樂水 속에서 自然에 對한 無極의 世界를 실감ᄒᆞ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면앙정의 山川을 寫實的으로 그리는 바, 〈詩畵本一律〉이라 하겠다.

[5] 안 개

「흰구름 브흰煙霞 프르니ᄂᆞᆫ 山嵐이라
千巖萬壑을 제집을 삼아두고
나명셩 들명셩 일허도 구ᄂᆞᆫ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의 써나거니
廣野를 건너가니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디트락 斜陽과 섯거디어
細雨조차 쓰리ᄂᆞᆫ다」

山嵐은 山골이 깊을수록 짙게 생긴다. 그러므로 山水畵에서는 神仙의 隱

34) 「秋月山 在府東北二十里 鎭山石壁削立四圍如城周九千十八尺其西北惟徒行者可通中有溪澗藥紓又有十三泉」(東國輿地勝覽 卷39 潭陽都護府 山川條)
「龍龜山 在縣北十五里」(東國輿地勝覽 卷39 昌平縣)
「夢仙山 在縣西三十里」(東國輿地勝覽 卷39 昌平縣)
「佛臺山 在縣北五里 鎭山術者以山 有走龍勢建佛宇稱上下 淵以鎭之」(東國輿地勝覽 卷36 珍原縣)
「魚登山 在縣西三十里」(東國輿地勝覽 卷35 光山縣)
「湧珍山 在州北四十五里」(東國輿地勝覽 卷35 羅州牧)
「錦城山 在州北五里鎭山」(東國輿地勝覽 卷35 羅州牧)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居處로서 千巖萬壑과 안개는 필수적으로 그린다. 俛仰亭은 안개가 짙어감에 따라 細雨로 묘사하고, 斜陽은 기우러져 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아름다운 순간의 경치를 화폭에 담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단락은 仙界를 憧憬해서 지은 환상적인 묘사로서 實體를 감추고 神仙의 은거처, 면앙정 주위의 自然을 연이어 寫景化하고 있다. 秋月山을 中心한 일곱 산에 드리워진 안개는 〈隱〉을 의미하는 寂寞의 世界를 감상할 수 있다.

47歲때 지은 〈眼豁何方無皓月 河明玆夕絕纖烟〉이라 하여 달과 안개가 서로 조화된 경치를 그리면서 아름다운 仙景을 그림과 같이 상상할 수 있다. 가사 및 漢詩에서 宋純은 객관적인 묘조에 젖은 感性的인 世界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신의 思想과 心機를 반영시키고 있다.

宋純은 俛仰亭中心으로 江湖自然에서 蕭條淡泊하고 閑和嚴靜한 趣遠之心으로 一生을 보내고자 했음은 그의 詩歌를 통해서 간파할 수 있다. 이것은 俛仰亭 자신의 境境인 동시에 당시 儒學者들이 文學은 생각하는 意趣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③ 水, ④ 山, ⑤ 안개는 細緻한 實景山水畵로서 한 폭의 그림이 갖는 美的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 위에다 亭子가 자리잡고 있으면 그림 속에 나타나는 仙界의 환상적 묘사로서 그 조화는 극에 이른다고 본다.

⑥ 四 季

〔春〕「藍輿를 비야투고　　솔아릭 구분길로
오며가며　　ᄒᆞᄂᆞᆫ적의
綠陽의 우는黃鸝　　嬌態겨워 ᄒᆞᄂᆞᆫ괴야

〔夏〕 나모래 ᄌᆞᄌᆞ지여　　綠陰이 얼린적의
百尺欄干의　　긴 조으름 내여펴니
水面凉風이야　　굿칠줄 도르ᄂᆞᆫ가

〔秋〕 ᄎᆞᆫ서리 ᄲᅡ딘후의　　산빗치 금슈로다
黃雲은 ᄃᆞ엇더　　萬頃의 펴거지요
漁笛도 흥을계워　　ᄃᆞᆯ롤ᄉᆞ라 브니ᄂᆞᆫ다

〔冬〕 草木 다진후의　　江山이 ᄆᆡ몰커ᄂᆞᆯ
造物리 헌ᄉᆞᄒᆞ야　　氷雪로 ᄭᅮ며내니
瓊宮瑤臺라　　玉海銀山이
眼底의 버리세라
乾坤도 가옴열샤　　간대마다 경이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四季節의 묘사는 다른 詩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각과 청각의 心象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생동감을 表現하고 있다. 즉 봄의 黃鸝, 여름의 綠陰, 가을의 黃雲(벼)과 漁笛, 겨울의 瓊宮瑤臺와 玉海銀山으로 각 계절의 순환은 어김 없이 運行하는 自然法則으로 그 理法은 변함이 없다. 無變하는 自然理法 속에서도 自我와는 모순없이 自然과 서로 포용하며 一體가 됨을 알 수 있다. 즉 自然의 웅성함과 너그러움과 그 속에서 人間과 조화를 이루는 物我一體의 세계를 느끼게 한다.

지금까지 前段落은 莊子의 逍遙遊에서 나온 〈無何有之鄕〉처럼 空間(名詞) 七言(無涯) 水(茫洋) 山(無極) 안개(寂寞) 四季(無變)는 俛仰亭의 現想鄕을 묘사하고 있다.

俛仰亭을 中心한 外界의 현상과 함께 宋純 自身이 느낀 內心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寫景으로서 實在에 존재하는 江湖自然과 그 事物에서 미세한 것까지 빠트리지 않은 채, 그 묘사가 逼眞(Verisimilitude)하다. 이같은 세밀한 寫景은 全體에서 微細한 부분으로 중간을 좁히는 表現은 묘사의 層次가 분명하고 면앙정 주위의 自然이 치밀함을 드러내주고 있다. 여기서 宋純은 江湖自然의 靜的인 상태에서 얻어질 수 있는 無我之境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境地는 한 사물을 통해서 다른 사물을 봄으로 어느 것이 나이고, 어느 것이 外界 사물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면앙정의 山水는 단순한 山水의 形似가 아니라, 흉중의 靈과 一體로 융합된 「玄牝之靈」을 表現하고 있다.

그리고 〈면앙정가〉에서 지금까지 表現한 自然은, 自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조하는 대상에서 小景의 美的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朝鮮朝 중기 性理學者들의 作品에 볼 수 있는 自然의 은폐성(Verborgenheit)과는 거리가 있다.

(3) 神仙과 理想(造景)

㉮ 物 外

人間을 떠나와도　　내몸이 겨를업다
이것도 보려ᄒᆞ고　　뎌것도 드르려고
보람도 허려ᄒᆞ고　　돌도 마즈려고
밤으란 언제줍고　　고기란 언제낙고
柴扉란 뉘다드며　　딘곳츠란 뉘쓸려고
아춤이 낫보거니　　나조ᄒᆞ라 슬흘소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오놀리 不足거니　　내일리라 有餘ᄒᆞ랴
이ᄆᆡ히 안자보고　　데ᄆᆡ히 거러보니
頌勞ᄒᆞᆫ ᄆᆞᄋᆞᆷ의　　ᄇᆞ릴일리 아조업다
쉴ᄉᆞ이 업거든　　길히나 젼ᄒᆞ리야
다만ᄒᆞᆫ 靑藜杖이　　다므ᄃᆡ여 가노ᄆᆡ라

지금까지 政治現實을 통한 人生事가 분주했던 모습도 생각되지만 〈劉向〉의 靑藜杖에서 致仕隱遁의 自矜을 볼 수도 있다. 한편으로 有限한 政治現實과 無限한 江湖의 仙人 사이에서 면앙정은 心的 혼동과 갈등을 느껴 自然에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心的 방향을 엿볼 수 있다.

면앙정이 46歲때 지은 詩에

是處着身堪偃仰　　이곳(자연)에 몸붙이니 한가하여라
浮名虛用一生愁　　헛된 이름에 애쓰던 일 한 평생 근심

라 하며 지난날의 政治生活에 후회하고 있다. 또 60歲에 와서 지은 詩에서는

藜杖松陰步步幽　　지팡이에 소나무 그늘 걸음걸음 그윽하고
岸巾徙倚玉溪頭　　갓 벗고 시냇머리에 기대어 선다

에서 면앙정은 自樂하고 있다. 벼슬을 그만 두고 歸鄕했을 때 江湖自然의 바쁜 일은 스스로 일어나는 興과 自樂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난 날의 政治 속의 바쁜 일과는 다르다. 이 단락은 면앙정자에서 소요자적하는 田野閑老의 生活을 보이면서 다음으로 이어진다.

⑧ 燕　飮

「술리 닉어거니　　벗디라 업슬소냐
불ᄂᆞ며 ᄐᆞ이며　　혀이며 이야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ᄇᆞ혀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져츠락
올프락 ᄑᆞ람ᄒᆞ락　　노혜로 놀거니
天地도 넙고넙고　　日月도 ᄒᆞᆫ가ᄒᆞ와
羲皇을 모롤너니　　이적이야 긔로괴야」

앞의 ⑦ 物外와 함께 山村의 風物이 시각과 청각적으로〈宋純〉의 風流를 逼眞하게 묘사하였다. 이제라도 官界의 인연을 끊고, 〈劉向〉과 같은 隱逸君子가 되어 風流를 즐기는 醉興을 表現하였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47歲때 지은 詩에

擬追笙鶴冲天擧　학타고 생황불며 하늘을 날고 싶다.
肯與醯鷄着甕乾　술아비처럼 이世上 얽매어 살랴

이라 하듯이 이때의 술은 복잡한 世上의 시름을 잊게하는 술이다. 그러나 60歲때에 마신 술맛은 다르다.

風檻坐傾無事酒　바람맞이 난간에서 일없이 마시는 술
江村看起太平烟　강마을에 일어나는 太平풍경을 보노라

이 시에서는 위의 詩와 다르다. 즉 근심, 걱정없이 江湖自然 속에서 興을 일게 하고 樂을 느끼며 드는 술맛이다. 이 단락에도 自樂 속에서 醉興을 일게하는 作者의 풍류를 암시한다. 이러한 自樂과 醉興은 만년에 와서 宋純에게는 老境의 眞率함과 人格의 純眞함까지 내포되어 나타난다.

㉤ **神 仙**

神僊이 엇더턴지　이몸이야 긔로고야
江山風月 거놀리고　내 百年을 다누리면
岳陽樓上의　李太白이 사라오다
浩蕩情懷야　이에셔 더할소냐

이 단락은 俛仰亭을 仙界化하여 자신을 神仙에 자처함으로써 이 가사의 頂點에 해당한다. 宋純은 자신의 상상을 발휘하여 理想世界를 眞實하게 表現하고 있다. 즉 自身을 通해 外界事物을 봄으로 그 사물이 모두 나의 색채를 띄는 것 같이 有我之境의 表象이 된다. 송순이 말하는 〈神仙〉[35]은 來世가 아닌 현실의 神靈스런 山水境界 속에 永生을 누릴 수 있는 仙界를 의미하는데 이는 道와 自然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다.

위의 가사 마지막 두 귀절은 그가 60歲때 지은 〈俛仰亭題詠〉의 詩에서도 〈濶野遙山供一望, 岳陽何獨擅風流〉라 하여 어찌 岳陽樓만이 風流가 있겠는가 하며, 自身의 風流를 견주어 보기도 하였다.

〈岳陽樓上의 李太白이 사라오다〉는 時·空間을 초월한 不滅의 世界에서 自然과 交感으로 仙界를 추구하려는 作家의 內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自然과의 교감에서 일어나는 불멸의 世界는 원래 神秘主義的인 체험에서만 그 實現이 가능한 世界다. 즉 時·空間을 초월해서 內外가 하나가 되고, 삶과

35) 「老而不死曰仙 仙, 遷也, 遷入山也」(釋名)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죽음이 이미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오직 신비주의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양상이다.[36] 그러므로 俛仰亭 역시 江湖自然을 통한 神仙世界의 추구는 자신의 영혼은 이미 幻夢의 世界로 移入시킴으로써 이 가사의 대단원을 이루게 한다.

《俛仰亭歌》는 現實과 仙境을 並立시키면서 끝내는 현실의 超脫과 仙境의 幻想이 交錯된 속에서 불려진 노래다. 그래서 宋純은 俛仰亭予를 中心한 自然속에서 江山風月主人이 되어 百年의 生을 누리고자 하였음이 가사뿐만 아니라, 이미 41歲때 지은 《俛仰亭三言歌》 詩에서 그 뜻을 밝히고 있었다. 이 三言歌 漢詩는 본 《면앙정가》를 총 집약시킨 것이다. 이 詩 속에는 宋純의 뜻과 삶, 소망이 24字 안에 그대로 응축시키고 있다. 하늘과 땅에 부끄럼 없는 俛仰之心의 삶을 누리고자 일찍부터 俛仰亭의 주인이 되어 湖然之氣의 기상 속에서 平生을 보내고자 하는 송순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면앙정가》라 본다.

⑩ 結 語

「이 몸이 이렁굼도
亦君恩이샷다」

위의 表現은 朝鮮朝 士大夫의 詩歌에서 자주 보는 君恩에 對한 丹心의 表現이다.

이미 孟思誠의 《江湖四時歌》와 李賢輔의 《生日歌》에 이어서 《俛仰亭歌》에서도 表現된 〈亦君恩〉은 이들에게는 관용적인 表現의 차원을 넘어선 〈感君恩〉의 뜻을 內包하기도 한다. 즉 江湖自然에 돌아온 致仕客의 평온한 삶의 영속에 의한 君主의 은혜도 있지만, 그보다 宋純에게는 지나간 어지러운 정치현실 속에서도 평탄한 관료생활의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士大夫보다 君恩에 對한 報恩의 情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58歲때 귀양時에 지은 短歌 《夢見主上歌》에

「한숨 지을 사이 홀연이 조으더니
연연훈 쑴결속에 내님을 모셔이셔
넷말을 사릭다 보니 날 샌 줄을 몰라라.」

36) R. S. Zaehner: Mysticism Sacred and Profane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51), p. 41 Passim.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한 바와 같이 이 시는 亦君恩과 상통하는 思君哀情의 노래[37]로서, 임금에 對한 송순의 생각은 만년에까지 그대로 변함 없이 이어진다. 그가 관직에서 致仕하는 77歲에 지은 致仕歌 三首[38]에도 本心이 잘 나타난다. 그 가운데 한 首를 보면

「늘써다 물러가쟈 ᄆᆞ음과 의논ᄒᆞ이
님불이고 어들어로 가잣말고
ᄆᆞ음아 너란 잇썰아 몸만 물러갈이라.」

하여 만년에 官職에서 물러나면서도 마음만은 王에 대한 충정을 잊지 못하는 아쉬움이 잘 표현되고 있다. 또 그는

「山翁溪友 雜坐談笑 而其愛君 憂國之誠 未嘗少弛」[39]

라 하여 만년의 江湖生活 중에도 항상 나라와 王에 대한 근심하는 빛이 역역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도 모두 〈亦君恩이샷다〉에 귀결되면서 君臣一致의 意味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前段 1 2 3 4 5 6의 景物은 직접 보고 寫景하였고, 後段 7 8 9 10은 宋純 自身이 면앙정자를 中心하여 仙界化하는 造景으로서 면앙정의 內的인 情感이 종합적으로 表現된 風格을 엿볼 수 있다. 後段에서는 俛仰亭 자신이 典故와 聯想을 통해서 면앙정의 자연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同化되어 仙界에 몰입되는 有我之境의 境界를 맛본다. 이러한 仙界의 몰입은 動的인 것을 거쳐서 정지상태에 들어갔을 때 自然의 모습이 광대하고 웅장하게 보이는 大景의 美的 감각을 얻게 된다.

《俛仰亭歌》는 면앙정자를 中心한 自然의 實景과 江湖之樂에 대한 절정감에 오른 자신의 생각을 豪宕하고 淋漓한 필치로 자기의 理想世界를 나타내고 있다. 즉 江湖自然=神仙의 관계를 理想化시키고 神仙의 世界를 추구하고자 하는 宋純의 意志가 담겨져 있다.

3.2 俛仰亭歌의 繪畵性

中國에서는 魏晋時代부터 謝靈運의 山水文學, 陶淵明의 田園文學에서부터

37) 丁益燮, 湖南歌壇硏究, 서울, 진명문화사, 1975, pp. 74~75.
38) 이 시조에 對해서 李泰極님은 〈致仕귀거래〉를, 李鍾建님은 〈未錄歌〉로, 丁益燮 〈致仕歌〉로 말한다.
39) 俛仰集 卷五, 〈年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自然과 文學의 관계가 밀접하였다. 그 결과 自然을 소재로 한 文學 가운데 詩는 〈느끼는 예술〉인 동시에 〈보는 예술〉[40]로 發展되었다. 이것이 나아가 自然과 繪畵의 관계는 더 자연스럽게 밀착되었는데 곧 宗炳(375~443)이나 王微(415~443)의 山水畵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中唐 以後 宋代에 와서는 中國繪畵의 中心이 되면서 文學과 밀착되기 시작한다.

中國畵의 대표가 되는 山水畵의 山水는 바로 自然의 道를 상징하고 이 自然의 道를 체득한 자는 聖賢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山水는 仁者·智者의 德을 비유하면서 상징시키고 있다. 儒家에서도 仁者樂山·智者樂水라 하며 自然의 功用性을 존중하여 三德실천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老子도 自然의 本體를 찾아 人法自然함으로서 自然에의 복귀를 希求하였다. 특히 老子는 神仙說과 山水思想과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神仙思想과 함께 山水思想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隱逸思想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自然 속에서 現實과 절연하는 隱逸君子들은 대부분 山水詩 혹은 山水畵로서 神仙世界를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 隱逸은 항상 山水田園이 그 背景이 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人間이 山水自然과 밀접한 관계로 갖게 된다. 그 결과 山水에 對해서는 詩와 함께 그림으로 묘사하여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곧 회화와 文學의 관계는 떼어 놓을 수 없다. 山水는 人間들에게 더없는 神靈스런 境界인 만큼 山水에 대한 詩와 畵의 境界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게 한다. 靈妙한 山水를 대상으로 詩나 그림으로 表現하는 일은 곧 道의 世界를 소요하는 隱逸君子나 山林處士의 일로서 그들에게는 최고의 境地에 달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中國에서는 山水敍景을 爲主로 하여 神仙景을 묘사한 山水詩·畵가 발달하였음을 볼 수 있다.[41]

위와 같은 中國의 山水詩·畵가 우리 나라에도 영향이 미쳐 일찍부터 老莊的 山水自然思想이 上代부터 뿌리를 내리면서 山水·田園文學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朝鮮朝에 와서 江湖自然을 소재로 한 詩歌文學이 鼇岩, 俛仰亭, 松江, 退溪, 松岩, 孤山, 蘆溪에 이르기까지 많은 作品이 나왔다. 이러한 이유는 朝鮮朝에 와서 儒教的 道德을 숭상하는 士大夫들의 입장에서 보는 山水自然의 조화는 靈妙한 美를 具顯하는 길에서 그것은 神仙의 경지

40) 孫眞淑, 中國繪畵의 文學性, 中國語文學, Vol. 3, (영남중어문학회 刊, 1981), p. 397.

41) 中國의 山水詩 作家로는 屈原의 楚辭를 비롯하여 宋玉과 魏晋시대에 와서 竹林七賢, 東晋의 王徽之, 孫綽 戴逵, 宋代에는 陶淵明, 謝灵運을 들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를 추구하려는 욕망에서 일 것이다.

특히 朱子學이 들어온 以後 조선조 성리학자들은 鄕里에서 〈精舍〉라는 집을 지어 自然과의 관계에 대한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미 朱子는 1184년 〈武夷精舍〉를 경영하면서 自然묘사와 성리학적 사상시로서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武夷櫂歌〉가 지어졌는데, 이것을 보고 徐巨正(1420~1488)이 〈朱文公武夷精舍圖用文公韻〉을 짓고 退溪에 와서는 〈次朱文公武夷櫂歌韻〉이라는 倣作들이 나오는 동기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詩의 의미내용을 포함하여, 江湖自然의 회화성을 나타내는 〈武夷九曲圖〉라는 自然과 精舍의 경영방식까지 닮고자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42] 朱子의 〈武夷櫂歌〉를 보고 退溪(1501~1570)는 隴雲精舍에서 〈武夷九曲圖〉와 〈陶山 12曲〉을, 栗谷(1536~1584)은 隱屛精舍에서 〈高山 9曲歌〉를 창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송시열(1607~1689)의 九曲圖와 金壽增(1624~1701)의 谷雲九曲圖 등은 우리 나라 實景山水畵의 발단적 계기[43]가 되었다. 면앙정 宋純도 潭陽에서 石林精舍와 俛仰亭를 세우고, 江湖自然을 즐기면서 詩歌를 창작하였음은 朱子의 영향을 받은 退溪·栗谷의 精舍生活한 것과 그 像이 비슷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精舍, 別業(堂), 庵, 亭, 樓 등은 조선조 士大夫나 선비들의 私齊, 서재들로서 16~17C에 많이 성행한 계기로 江湖自然에 대한 친근감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精舍生活의 계기로 山水自然 속에 소요자적하는 것은 神仙의 경지에 드는 일이며, 山水를 소재로 한 詩의 창작은 자신의 道를 구현시키고 道를 체득하는 첩경일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自然을 대상으로 求道의 예술, 精神의 예술[44]로서 그 가치를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宋純의 《俛仰亭歌》도 한 폭의 그림으로서, 또 〈보고 느끼는 예술〉로서 회화적인 詩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霽月峯을 터전으로 삼아 면앙정자 앞의 水, 山, 山嵐 등의 山水는 神仙世界의 배경으로 하는 山水畵다. 《俛仰亭歌》의 山水는 동양화에서 보는 것처럼 作品內容의 전개를 順次的으로 전개해서 처리하는 畵面의 구성으로 表現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면앙정자를 中心으로 모든 山水를 비롯한 구성이 흩어져 산만하게 보인다. 하지만

42) 俞俊英, 造形藝術과 性理學, 한국미술사논문집(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刊, 연구논총 84~8, 1984), pp. 5~13.

43) 俞俊英, 九曲圖의 發生과 機能에 對하여, 考古美術 第151號(1981. 9), pp. 1~20.

44) 權德周, 中國美術思想에 對한 연구(서울, 숙명여대출판부 刊, 1983), p. 53.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 산단 함에도 불구하고, 화면 전체을 구성하는 敍景이 분산되지 않는 것은 近景에서 遠景의 순으로 形成的인 전개 때문인 것 같다. 그러므로 면앙정자를 中心한 水, 山, 안개, 바람 등은 모두 단순한 個別的인 존재가 아니라 전체를 이루는 풍경이다. 이 풍경이 곧, 면앙정의 山水敍景畵다.

厲愼之가 쓴 〈畵雲臺山記〉에서 東洋畵의 사상적인 특성中의 하나로서 山水畵 구성이 三段으로 되어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45] 이에 따라 〈俛仰亭歌〉의 내용구성을 보면 제一段은 山, 水, 정자앞의 평야로서 항상 淸氣가 감돈다. 제二段은 山의 여러 가지 형상과 山嵐 및 四季의 모습이다. 제三段은 면앙정자에서의 自樂과 醉興으로 仙界의 境地에 몰입하는 자신의 心境表現으로 나눌수 있다.

〈俛仰亭歌〉의 전체구성은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물과 땅은 서로 바쳐가면서 全畵面을 渾成하고 있다. 즉 하늘과 물, 땅은 하나가 되어 끝없이 廣漠하게 하고 있다. 東洋畵가 지평선을 고려하지 않음과 같이 《면앙정가》에서도 지평선의 표시없이 하늘과 땅이 서로 합쳐 면앙정자의 화폭을 크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가사에서 표현된 이 풍경은 구체적인 表現기법과 文章의 수사법으로 읽는 이로 하여금 면앙정자를 머리 속에 능히 그릴 수 있다. 이같이 詩·畵가 一體할 수 있는 기법은 西洋畵에서 찾아 볼 수 없는 東洋畵의 특징이다. 희랍시대의 Simonides는 〈畵는 조용한 詩이며, 詩는 말하는 그림〉이라 하였으며, Hegal도 〈詩에는 음악적인 면과 회화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였듯이, 〈俛仰亭歌〉는 문학, 음악, 회화가 서로 혼용된 作品이라 하겠다.

따라서 宋純의 《면앙정가》는 詩로서 그림을 그리는 無形畵다. 즉 詩意로서 畵意를 발휘하고 나아가 詩境으로서 畵境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것은 作家(詩人)의 상상과 감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詩와 畵의 결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면앙정가》에서 詩歌와 繪畵의 接合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럴 땐 형식상의 융합에서 오는 예술상의 詩歌보다 繪畵의 美的 가치가 중요성을 더해 줄 것이다.

한편 詩와 畵는 그 기능과 성격상 서로 다른 面을 지니고 있다. 즉 객관적인 自然을 表現하는 視覺的인 냉철한 美를 繪畵라 한다면, 주관적인 意志를 이야기하는 감각적인 예술, 溫柔한 美를 表現하는 것이 詩라 하겠다. 이

45) 金原省 著, 閔丙山 譯, 東洋의 마음과 그림(서울, 새문사, 1983), p. 165.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러한 서로 다른 면을 一體化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것은 文章의 수사법인데, 이 수사법을 구체화·입체화하여 表現함으로써 詩의 회화성을 노출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俛仰亭歌》는 마치 수사법의 寶庫처럼 의인, 은유 직유, 상징, 반 어·반복법, 그리고 점층법을 이용하여 詩語를 구사함으로서 더욱 가사의 회화성을 나타내는 진가를 발휘하였다.

《俛仰亭歌》에 나타나는 山水表現은 하나하나가 형체로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전체적인 뜻을 나타내는 宋詞의 특색을 도입하고 있다.[46] 그러므로 《면앙정가》의 회화성은 作家自身이 몸소 겪은 체험을 기초로 한 山水表現의 진실성이 儒學者의 道德的 사고의 관념성이나 문헌적 기술의 추상성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강열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 《면앙정가》는 면앙정자를 中心해서 배경되는 山水는 곧 造化의 神秀로 인식되어지고 음양의 明晦, 近景부터 遠景의 景觀을 지척에다 축소해서 한 화폭에 담은 것인데 이는 宋純 자신의 內心에서 저절로 형성된 江湖自然의 그 상징으로 본다. 사람의 마음은 自然에 깊숙히 滲潤하면 저절로 그 형체가 釀成되어 마음의 화폭에 나타나게 되고,[47] 그것이 밖으로 表現될 때 그 境界는 고상해지면서 한폭의 회화적인 형체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4. 結 論

《俛仰亭歌》는 俛仰亭子를 中心한 江湖自然에 대한 寫實과 自樂을 陳述하면서 詩的으로 繪畵性이 表出된 作品이다.

〈俛仰亭〉의 「俛仰」은 宋純 自身이 平素 힘쓰고자 하는 마음의 意味를 새기고자 그는 면앙정자를 짓고서 〈蓋取 俛仰亭 宇宙之義也〉라 한 데서 나온 것으로 宇宙를 뜻한다. 즉, 〈俛仰〉은 「俛仰宇宙」하여 俯不怍, 仰不愧하는 자세로 天人合一하는 "俛仰之心"을 表象하고 있다. 天人合一하고자 하는 俛仰之心은 곧 莊子가 理想視하는 至人의 경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神仙의 世界까지연 결시키고 있다.

〈俛仰亭歌〉는 作品內容을 크게 둘로 나누는 前段의 寫景과 後段의 造景으로 境界性이 區分된다. 다시 말해서 면앙정자를 中心으로 山水實景을 表現한 寫景, 즉 無我之境의 境界와 또 하나는 宋純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 주관

46) 權德周, 위의 책, pp. 33~53.
47) 金原省 著, 閔丙山 譯, 위의 책, p. 158.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적으로 神仙世界를 理想化시킨 造景, 즉 有我之境의 境界를 볼 수 있다. 前者는 神仙世界의 背景으로 理想化시키고자 면앙정자를 中心한 江湖自然을 통해서 다른 理想世界를 생각하고, 어느 것이 外界인지 알 수 없는 自然物과 自我가 일치하는 상태로서 外界의 현상이나 內心의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境地를 의미하고 있다. 後者는 神仙世界의 生活을 동경하는 입장에서 自身을 通하여 면앙정자를 中心한 外界 自然을 봄으로 그 江湖自然이 모두 나의 색채를 띠게 되므로 自身이 理想化하는 神仙世界에 몰입하게 되도록 주관적으로 묘사하는 境地를 뜻한다. 이 두 境地가 合했을 때 곧 俛仰亭이 갖는 神秘主義的인 境界요, 致仕客의 風格이 들어난다고 본다. 그리고 강호자연을 通한 仙界의 두 境界도 모두 임금의 은혜, 즉 〈亦君恩이 샷다〉라는 귀절은 송순에게는 50年間 관직생활에 대한 報恩의 情으로 상징되는 것으로 본다.

《俛仰亭歌》는 古佛, 聾岩의 江湖詩歌에 이어 송순은 더욱 견고한 自身의 江湖世界의 상을 구축하면서 다른 作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면앙정자의 구체성을 드러내는 繪畵性의 意味를 表出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朱子의 〈武夷精舍〉와 〈武夷櫂歌〉가 朝鮮朝 性理學者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江湖自然의 繪畵性을 잘 나타내는 〈武夷九曲圖〉의 山水까지 닮고자 노력하였는데 退溪의 陶雲精舍, 栗谷의 隱屛精舍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武夷櫂歌〉가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 退溪는 〈陶山十二曲〉, 栗谷은 〈高山九曲歌〉를 지어 朱子의 思想性과 武夷九曲의 自然을 흠모했다. 따라서 한편으로 宋純도 朱子의 武夷精舍를 모방하여 〈石林精舍〉와 〈俛仰亭于〉를 세우고 《俛仰亭歌》를 지었으니, 그 像이 비슷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俛仰亭歌》는 詩歌로서 면앙정의 자연을 그림으로 表出한 無形畵다. 즉 詩意로서 畵意를 발휘하고, 나아가 詩境으로서 畵境을 넓혀감으로 詩歌와 繪畵의 接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면앙정가》는 文學的으로 詩的인 의미도 크거니와 繪畵의 美的 가치가 동시에 지니는 가사로서 중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 《俛仰亭歌》의 회화성은 宋純이 직접 체험을 기초로 山水表現의 眞實性이 儒學者의 道德的 사고의 관념성이나 추상성에 비해 회화성의 기술이 훨씬 직접적이고 강렬한 것임을 느낄 수 있다.

《俛仰亭歌》는 江湖自然을 찬미하고 神仙의 境地를 志向하는 自身의 心性을 노래한 敍景가사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